금수강산

10

주체108(2019)
루계 제362호 월간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오리라

작사 최희건
작곡 전창일

가슴속에 품고 산 이내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 예서 꽃피리
너를 위해 바치리 이내 청춘을

푸른 숲에 새들이 찾아올적에
열매 따는 사람들 기뻐할적에
노래해다오 푸른 숲이여 이내 행복을

나의 꿈을 키워준 그 품도 여기
나의 삶을 꽃펴준 그 품도 여기
너와 함께 빛내리 이내 한생을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의 기쁨

또다시 조국을 방문하는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동포들.

자주 오군 하는 조국이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고향집뜨락에 들어서는 자식들마냥 동포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어리여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1월

변모되는 국토

조국의 국토가 나날이 그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그 모습을 보며 조국인민들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드는 사연이 있다.
그것은 조국의 국토를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국토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에 대한 이야기이다.
돌이켜보면 오로지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리념은 국토관리사업에도 구현되였다.
해방전 조국의 국토는 일제의 야만적인 략탈과 파괴,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 빛을 잃고있었다. 평양의 보통강만 해도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져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만을 준다고 하여 재난과 불행의 강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국사업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고 문수봉에 오르시여서는 나무를 심으시였다. 그 과정에 국토건설의 원대한 구상도 펼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을 세계에 빛나는 인민의 도시로 일떠세우시려고 바치신 그이의 로고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에 현대적인 수도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포연속에 잠긴 거리를 밟으시며 일떠서게 될 건축물들의 터전까지 잡아주신 그런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력사의 갈피속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처럼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속에 전후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평양이 전변을 안아왔다. 짧은 기간에 살림집들과 평양대극장, 옥류관, 학교와 병원, 유원지들이 보란듯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수도가 풍치수려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전변되게 되였다. 각 도, 시, 군들이 지역적특성에 맞게 일떠서고 관개공사가 진행되여 옥토를 적시였으며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사업이 벌어져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게 되였다. 그후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대규모의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대동강에 미림갑문, 봉화갑문을 비롯한 계단식갑문들이 일떠서고 도처에 수력발전소와 도로들이 련이어 건설되였다. 산은 산마다 황금산으로 전변되고 전야에는 황금이삭이 물결쳤으며 어장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황금해가 펼쳐져 국토는 인민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국토건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광범하게 진행되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인민의 념원을 그대로 구현하시여 평양을 일떠세우시였다.

만수대언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고 그이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주체사상탑, 개선문과 **김일성**경기장이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섰다. 그이를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졌다.

수도를 인민의 도시로 꾸리시려는 그이의 령도밑에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여 새 거리들과 극장, 병원, 봉사망 등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명실공히 평양이 인민의 도시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사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여서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국토의 면모를 계속 일신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강원도와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된데 이어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양시에서도 토지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서해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논밭들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으며 많은 물웅뎅이들이 옥토로 전변되였다.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수만㎾의 전기를 쓰지 않고도 많은 농경지들에 관개용수를 보장해주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일군들에게 자주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것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없는 산을 보시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구상도 펼쳐주시였다. 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고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구월산, 칠보산을 비롯한 많은 명승지들과 명소들이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지고 강하천제방건설과 정화장, 침전지건설 등 국토관리사업은 보다 폭넓게 추진되게 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토건설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되고있다.

국토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켜나가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국토관리사업의 총적방향이다.

그 실현을 위해 그이께서는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모든 심혈을 바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인민의 념원과 충정의 마음을 담아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정중히 모시였으며 그분들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더 잘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졌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났으며 금수산태양궁전과 룡남산지구에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일떠서 세인을 놀래웠다.

그이께서 이 거리들의 형성에 바치신 헌신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려명거리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이께서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건물들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며 천수백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였기에 려명거리는 방대한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벌리면서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한 사실은 문수물놀이장과 인민야외빙상장, 과학기술전당 등 수많은 현대적인 건축물들마다에 뜨겁게 깃들어있다.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 또한 끝이 없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간직하시고 여러차례나 중앙양묘장을 찾고찾으시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산림복구의 원대한 구상도 펼쳐주시였다. 그리고 도처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온 나라가 떨쳐나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의 인민들 특히 평양시민들은 수도가 본보기를 창조해야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수 있다는 마음을 안고 거리와 마을, 일터에 나무를 심고 록지와 꽃밭을 조성하여 수도의 면모를 보다 풍치수려하게 꾸리였다. 뿐만아니라 방대한 대동강유보도개작공사 등 수십개의 국토건설대상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평천오수정화장개건공사, 오물처리공장건설, 수백개소의 침전지건설 및 보수, 방대한 강하천정리사업을 진행하여 수도의 환경보호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창조된 국토관리사업의 본보기는 급속히 파급되여 조국의 북변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거리와 마을, 일터 등 어디서나 국토관리열의로 들끓게 하였다.

최근년간 평성시, 사리원시, 성천군, 동림군 등 많은 시, 군의 인민들은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및 공공건물들을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 수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산들을 푸르게 하였는가 하면 미곡, 삼지강을 비롯한 각지의 농장들에서는 집집마다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은 아담하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자기 고장의 특색을 보이였다. 그런가 하면 새땅을 얻기 위한 방대한 간석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그러한 속에 삼지연군이 조국의 산간지대군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서고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국인민들은 올해에도 자기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있다. 비록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계속되고있지만 만리마속도를 늦추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해 열과 정을 다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때 내 나라, 내 조국이 더욱 부강하고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은 보다 큰 보폭을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평양의 모습

예로부터 평양의 모란봉은 마치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한데다가 짙은 록음과 갖가지 꽃들이 하나로 어울려 명승지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란봉에서 보는 평양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평양의 모습에서 제일 먼저 눈에 안겨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조각군상들과 조선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있는 만수대언덕은 참으로 숭엄하게 안겨온다.

최근시기 여기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지구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특색있게 일떠선 창전거리의 모습으로 하여 보다 웅장화려하게 단장되였다.

또한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의 모습이 정중하게 안겨온다. 특색있게 공원화된 태양궁전의 광장도 아름다운 화폭으로 안겨오지만 갖가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숲을 이룬 수목원의 전경은 보다 태양궁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한 재중동포 안미자는 만수대와 금수산지구만 보아도 평양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충정이 맥박치는 도시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있는 려명거리만 놓고보아도 아담한 다층건물로부터 고층, 초고층의 각이한 양상의 건물들로 배치되여 정중성이 보장되면서도 현대미가 나게 건설되였다.

마치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우리를 옮겨놓은듯싶은 이 려명거리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자랑할만 한 거리이다.

남쪽에서 바라보이는 멋쟁이거리인 미래과학자거리 역시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조화로운 탑식, 묶음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봉사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대동강반에 우뚝 솟아있어 볼수록 멋있고 이 일대의 전경을 이채롭게 하고있다.

하기에 이 거리들을 돌아본 한 해외동포가 창전거리를 보고는 《미남도 보통미남》이 아니라고 표현했고 미래과학자거리는 《황홀경》이라고 감탄했으며 려명거리를 보고는 《넋을 잃었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고 한것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대동강을 옆에 끼고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 과학기술전당 등 미처 그 이름을 꼽을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그러한 창조물들이 수도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거리들, 살림집들과 극장, 체육관 등과 조화를 이루어 평양의 모습을 보다 웅장화려하게 하고있다.

수도의 동서남북을 굽어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또 하나의 풍치가 있다. 그것은 평양이 공원속의 도시로 불리울만큼 수림화, 원림화가 되여 공원들이 많고 록음이 우거진것이다.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 규모있게 형성된 평양시에는 그 어디를 가나 근로자들이 휴식할수 있는 공원과 유원지들이 꾸려져있으며 민족적형식과 현대미를 갖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룬 거리들에는 가로수와 록지가 조성되고 갖가지 꽃들로 단장되여있다.

어찌 그뿐이랴.

개선청년공원의 유희기구들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좋지만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매일과 같이 울려퍼

지는 릉라도와 문수물놀이장의 아름다운 풍경은 볼수록 마음마저 흥그럽게 하여준다.

그리고 대동강의 물결우에 멋들어진 자태를 드러내며 달리는 식당배 《대동강》호와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현대미를 자랑하며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도 수도의 모습을 이채롭게 한다.

관광비행기를 타고 대동강우를 날으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환희로운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명승이요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습이다.

적대세력들이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제재책동에 매달리고있지만 조국인민은 더 억척같이 일어나 수도 평양을 이처럼 훌륭하게 전변시키고있는것이다.

그 창조물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것은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세상은 넓어도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의 목소리들이다.

하기에 평양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세계의 특권층들이 《더 훌륭한 문명》을 맛보겠다고 억대의 돈을 뿌리며 여기저기 지구촌을 돌아다닐 때 평양에서는 문명의 참세상을 창조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고, 평양의 문명을 보면 세계가 창조해야 할 문명의 세계가 보인다고 확언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수도 평양의 모습이 오늘도 그러하지만 래일은 더욱 웅장화려하고 현대적으로 변모될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이기도 하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넓어지는 대지

조국의 서해지구에 전례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보여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도 자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홍건도간석지건설은 조국에서 세번째로 큰 간석지건설로서 평안북도 선천군 석화리에서 접도지구와 신미도, 홍건도를 걸쳐 동림군 안산리를 련결하는 제방길이만 하여도 무려 30여km가 넘는 방대한 건설이다.

이 건설이 완공되면 1만정보의 새땅을 얻게 된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홍건도간석지건설자들은 공사를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1단계건설을 완공하여 4 500정보의 부침땅을 얻어낸데 이어 지금은 5 500정보의 새땅을 얻기 위한 2단계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300여만㎥의 막돌과 토량으로 수십리제방을 쌓아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하여 근 1 600정보의 새땅을 얻어냈으며 8년분 공사과제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기간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이곳 건설자들은 2단계 1구역의 련결제방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기초하여 건설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사실 다른 간석지건설에 비해볼 때 홍건도간석지건설은 공사량이 방대하고 조건이 불비한것으로 하여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1호방조제건설만 보더라도 방조제구간이 륙지와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지반이 매우 물러 매일과 같이 제방압출현상이 나타나군 하였던것이다.

간석지건설에서 흔히 있는 압출현상이였지만 이곳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오랜 세월 쌓이고쌓인 무른 감탕층은 수십t이 넘는 쇠그물돌자루도, 수십차분의 막돌과 토량도 무섭게 집어삼키군 하였다.

하루에 3번씩이나 압출현상이 나타나 온종일 일을 해도 단 한m도 전진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막돌과 흙소비량이 몇배로 늘어났고 그만큼 공사속도도 지연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채석장과 토취장조건도 좋지 못하여 필요한 량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에 기어이 간석지를 완공하려는 이곳 건설자들의 굳센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종전의 낡은 공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 조건에 맞는 건설공법을 새롭게 창안하는 한편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집중, 련속성토에 의한 방조제건설공법과 사리와 조금을 리용한 방조제2단성토공법, 마감막이바닥보강의 구조와 시공방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공법을 창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건설자들은 바다의 정복자,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사나운 파도를 맞받아나갔고 비바람과 폭풍이 세차게 몰아칠 때에도 제방건설을 중단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기어이 관철하려는것, 바로 이것이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맥박치는 하나의 지향이였다.

우리와 만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 최영덕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국에서 먹는 문제를 자급자족하자면 결정적으로 간석지건설을 앞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강령적인 과업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바다의 정복자답게 간석지건설장마다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며 이로 하여 조국의 대지는 더욱 넓어지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잠들줄 모르는 간석지건설장의 밤

산골군의 풍치에 이끌려

얼마전 우리는 평안남도 신양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성천군과 신양군의 경계점에 있는 석창다리입구에서 우리는 최현철 신양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부장을 만났다.

《신양군의 첫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석창다리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류다른 첫 인사말에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다리가 개건된 후 아마 기자선생님들이 처음으로 통과한 손님들중에 속할것입니다. 방금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세기에 건설되였던 석창다리를 군자체의 힘으로 개건하였다고 말하였다.

석창다리 하나만 놓고서도 국토환경보호사업을 잘하고있는 신양군사람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알수 있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아직 보여줄것이 많은데 벌써 평가를 내리면 안된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탄 취재차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읍지구로 향하였다.

일매지게 뻗어나간 도로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벽들이 규칙적으로 세워져있었다.

읍지구에 들어서니 도로를 따라 좌우에 아담하게 일떠선 살림집들과 수종이 좋은 가로수며 하얀 가로등들이 산골군의 풍치를 돋구어주고있었다.

도로를 비롯하여 우리의 눈앞에 안겨오는 모든것이 규모가 있고 깨끗하였다.

읍전경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최현철부장은 《지금으로부터 13년전에 우리 군은 큰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읍지구는 거의 페허로 되다싶이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신양군사람들은 전국적인 지원밑에 도로를 다시 닦았고 집들도 더 크고 멋있게 건설하였다.

그리고 고향땅에 다시는 그런 재난이 들씌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류강상류와 평원천기슭에 든든한 제방을 쌓고 산비탈면들에 사방야계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해마다 산에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심어 땅의 류실과 산사태를 막아냈다.

우리는 와동골에도 가보았다.

읍에서 5리정도 떨어진 와동골에는 가물로 하여 물이 바닥이 난 내가가 있었다. 이 고장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장마때면 이 골, 저 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내가에 합쳐져 자주 물란리와 사태가 나군 하였다고 한다. 그로 해서 많은 농경지들이 류실되고 살림집들과 도로들이 혹심하게 파괴되군 하였다. 하여 군에서는 강을 다스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물길을 곧게 펴주고 돌뚝차단물도 만들었으며 여러 개소들에는 석축에 쇠그물망까지 덧씌워 만년대계로 구축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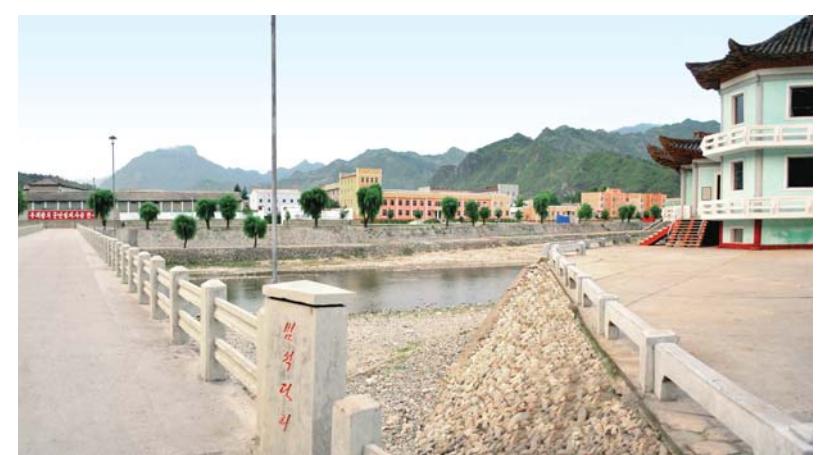
하여 그 어떤 폭우가 내려도 산사태와 큰물피해는 이젠 과거이야기로 되였다고 이곳 주민들은 말하고있다.

우리는 군의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 큰 몫을 수행한다는 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도 들려보았다.

분수식관수체계가 되여있는 1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평양단풍나무, 모감주나무를 비롯한 나무모들이 빼곡이 자라고있었고 온실들에서는 단나무모들이 뿌리를 내리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김병섭 산림경영소 지배인은 《우리는 양묘장을 통하여 군산림면적을 해마다 늘일뿐만아니라 고향의 모든 산들을 도라지, 머루, 다래, 찔광이, 도토리와 같은 산열매와 약초들이 가득찬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양묘장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금당화를 키워 꽃은 군고려약공장으로 보내주고 채취한 열매는 산림감독원들에게 나누어주어 적지들에 심도록 하고있었다.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여름이면 금당화꽃을 따면서 부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가 자기 향토를 가꾸어가는 이 고장의 이채로운 풍경이 아닐수 없다는것이였다.

어느덧 양묘장앞산너머로 저녁해가 기울어졌다.

산골군의 풍치에 반하여 발걸음을 떼줄 모르는 우리에게 최현철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군의 산림조성, 하천정리, 토지정리 등을 통하여 국토관리사업이야말로 군인민들에게 복리를 마련해주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 군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는 그날 꼭 다시 오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자체로 나무모를 생산하여 국토환경보호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수림화된 읍거리의 일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져있다.

◇ 일 화 ◇

중차대하고 선차적인 과업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청사, 묘목전시장,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 양묘장의 그 어느곳이나 현대적으로 꾸려져있었다.

이 희한한 모습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양묘장의 모든 요소들이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되고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데 대하여 기뻐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강원도가 기치를 들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해주신 그이께서는 년간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가 또 하나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풍만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자연원료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창과도 같은 양묘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세우고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양묘장을 덩실하게 꾸려놓고 나무모생산을 능력대로 하지 못하면 의의가 없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다.

나무모생산에서 경험주의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양묘장에서 고온피해와 랭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나무모를 심을데 대한 문제…

이날 그이께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이 한계단 더 높아진 양묘장의 본보기가 건설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각 도들에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양묘장건설을 빨리 다그쳐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양묘장들사이의 경험교환, 원격협의체계를 세워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고 선진적인 나무모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완성시켜나갈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을 대단히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더없이 숭고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현시기 가장 중차대하고 선차적인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집중하여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의 전초병, 척후병, 직접적인 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무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자연의 《건강》을 위하여

- 김영권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원장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이 병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자연이 병든다는것은 환경이 오염된다는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의 오염은 공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물질적리해관계만을 추구하는데로부터 더 심각해지고있어 많은 나라들에서 이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원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보호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중시해오고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이 채택되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습니다.

42년전에 창립된 우리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사람들이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대기, 물, 토양을 비롯하여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연구실들로 구성된 연구원에서는 환경보호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있습니다.

평양시의 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평양시환경보호계획작성방법을 완성한것이라든가 공업로와 보이라의 가스 및 먼지제거기술, 륜전기재들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 공업폐수의 정화기술 및 정화재료, 페기페설물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였습니다.

또한 평양시와 각 도에 환경감시초소들이 세워져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환경관리체계인증사업도 근기있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기자: 정말 그동안 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서 조국인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묵묵히 하여왔다고 봅니다. 그 나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여러 측정장치들이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지 않습니까.

원장: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성능높은 환경감시측정설비인 아류산가스자동측정기를 우리 식으로 연구제작한것입니다.

이 측정기는 대기중의 아류산가스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고 현시, 기록, 전송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설비입니다.

과학자들은 값비싼 측정설비들을 수입하지 않고 자동측정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벌렸습니다.

이 과정에 리성일실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측정설비들의 측정원리와 우결함,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국내실정에 맞으면서도 감도와 재현성이 높을뿐아니라 운영이 편리한 아류산가스자동측정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제작된 이 측정설비는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의 환경감시초소들에 도입되여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깨끗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환경감시측정지표들인 대기중의 질소산화물, 부유먼지, 물환경중의 부유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할수 있는 여러 설비들도 새롭게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고있습니다.

기자: 그 하나하나의 장치와 설비들이 우리 조국을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산과 물이 병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자연이 병들게 되면 자연히 사람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건강》, 인간의 건강을 위해 환경보호에 더 힘을 넣고있는것입니다.

자연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입니다.

기자: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우리의 미래

주체107(2018)년 4월 신도습지보호구를 돌아본 뉴질랜드미란다자연기금 부회장 아드리안 찰스 리에겐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 지점에서만도 10여종에 2만마리이상이나 되는 도요류들을 볼수 있었다. 이것은 여기가 철새들의 도중체류지로서 국제적의의가 큰 습지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세계유산협력기구에 자연유산으로도 능히 오를수 있다고 본다. 귀국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지역을 잘 보호해주기를 부탁한다.》

신도습지보호구뿐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동서해안지구에는 30여개의 철새 및 습지보호구가 설정되여 철새들의 훌륭한 도중서식장소로 되고있다.

특히 서해안의 문덕철새보호구는 철새보호와 증식사업을 선진수준에서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국제적인 시범지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조선자연보호련맹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산하에 산림, 동물, 식물, 원림, 토지 등으로 구분된 12개의 자연환경보호협회를 둔 련맹은 보호활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련맹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계발시키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토론회, 과학기술강의, 기술발표회, 경험교환회, 방식상학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잡지 《자연보호》와 정보기술교류소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자연과 환경보호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진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보호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연구사들은 현지에 나가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호대책도 세우고있다.

김성남 조선자연보호련맹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오가산자연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들이 200여개나 되는데 이런 환경은 생물다양성보호와 증식을 위한 훌륭한 서식지로 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주체52(1963)년에 국제자연보호련맹에 가입한 련맹은 국제적교류와 협조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련맹은 주체104(2015)년부터 뉴질랜드미란다자연기금과 우리 나라 서해연안에서 철새의 생리학적특성과 그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해오고있다. 조사과정에 연구사들은 서해연안의 습지대들에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종에 놓인 수만마리이상의 도요류들이 도중서식하고있는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맞게 련맹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동아시아－오스트랄리아철새이행경로의 중심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의 지리학적특성에 맞게 오래전부터 철새들이 날아오는 봄과 가을에 생태환경을 특별히 마련해오고있다.

그들은 이 시기에 보호구만이 아닌 습지대들에서 사람들의 파도채취현상을 줄이고 채취시기와 구역도 규정해주어 사람과 새들이 서로 공존할수 있게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련맹은 몽골곤충애호가협회의 제의로 곤충채집분야에서의 교류도 진행하고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미래를 마련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연구사들은 보호활동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련맹은 올해 11월에 창립 60돐을 맞이하게 된다.

본사기자 김성경

조선서해안의 철새보호구에서

반 향

세계가 공인하는 령도자

2017년 1월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에서는 공화국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강력한 전위대오,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김정은**각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조선사회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동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에 있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곧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다라고 지적하였다.

언론들은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자립적경제토대와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비약과 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적수완에 경탄하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당시)는 바깥의 압력에 맞서는 풍격을 보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은 《강경자체를 물거품만들기》라면 비슷하지 않을가싶다고 하면서 **김정은**대응방식은 상대방의 최대약점을 찾은 다음 원가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활동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특징은 변화무쌍이다고 분석하였다.

2012년 3월 중국 홍콩신문 《아시아 타임스》는 북조선의 최고령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적게 돌려진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훌륭한 경제지도자이시라는것이다,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사변을 주도하시는것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을 최선진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집중공세를 벌리실것이다고 쓴 한 해외문필가의 글을 게재하여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라오스신문 《꽁탑빠싸손라오》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조선은 경제건설과 국방분야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국가령도자로서의 **김정은**각하의 정치실력을 잘 알수 있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여난 정치가, 창조적능력이 높고 실천력이 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인식이다.

지난해 미국잡지 《네이슌》은 북조선령도자께서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할데 대해 밝히시였다고 하면서 대화의 원동력은 분명 북조선령도자에 의해 마련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BBC방송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북조선 국무위원장께서 순식간에 2018년 정치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지도자로 등장하시였다. 중국, 로씨야, 수리아,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김정은**위원장을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말그대로 세계지도자들이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있다.

카나다신문 《토론토 스타》는 실지로 북조선이 현재의 정세를 주도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가고있는 상태이다, 아무튼 북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군사강국이며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벗들은 백두산정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세계정치의 방향타를 틀어쥐신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21세기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종식되고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가 실현되는 위대한 **김정은**세기로 빛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수난당한 대지

(전호에서 계속)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한 청년들속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선 남아대장부라면 마땅히 가정쯤은 잊어야 한다는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류행되고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는것이 청년혁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나는 일찌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정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나자신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신하는것이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것이 그 당시 내가 일상적으로 품고있던 효성관이였다. 나는 혁명과 분리된 순수한 효성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기때문이였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수 있다는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앞에 부과된 공민적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수는 없다.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혁명가를 투쟁에로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혁명가의 투쟁열도도 동시에 식어진다.

나는 가정과 혁명사이의 이런 상호관계를 원리적으로는 알고있었지만 일신을 혁명에 바친 혁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한다는것이 어떻게 사랑하는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아침에 깨여나 집안팎을 둘러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 할 구석이 여러군데 있었다. 땔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를 도와 틈틈이 가정일에도 손을 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만사를 젖혀놓고 철주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땔나무를 해오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낌새를 챘는지 우물터에 갔던 어머니가 또아리와 낫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손이나 덜자구 너희들을 따라가는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런다. 어제야 할머니가 장밤 너를 붙들구 말을 시키지 않았니.》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며 밝게 웃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집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군 하였다. 할머니가 물러앉으면 동생들이 나를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무를 하는 동안 노상 내곁에 있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주야, 너 최동화라는 사람을 알겠니?》

《알지요. 최동화야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며칠전에 우리 집에 들렸더라. 네가 언제쯤 안도로 올것 같은가, 오면 알려달라구 하면서 너하구 한바탕 입씨름을 해보구싶다지 않겠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하구 입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까?》

《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30폭동이 잘못된 폭동이라구 선전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더라. 상급에서도 다 지지하고 밀어준 폭동인데 성주와 같이 지각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구 하면서 머리를 흔들더구나. 네가 혹시 사람들의 눈에 나는게 아니냐?》

《눈에 날수도 있겠지요. 내 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 같습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물정을 아니. 그저 사람들이 무리로 죽고 잡혀가니 야단이라구 생각했다.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면 혁명은 누가 한다더냐.》

나는 소박하면서도 단순명료한 어머니의 지론이 퍼그나 마음에 들었다.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였다. 인민이 판단하지 못할 사회현상이란 있을수 없는 법이다.

《어머니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동화라는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수습해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니다.》

《네가 그럼 또 지난봄처럼 바삐 뛰여다녀야겠구나. 오늘처럼 다시는 집살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할일을 직심스레 하거라.》

어머니가 나에게 하고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머니는 내앞에서 최동화의 이야기도 꺼냈을것이다.

나는 그후부터 어머니의 념원대로 조직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안도도 5.30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였다. 그런데다가 이 지구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안도를 혁명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렬을 늘이며 당조직지도체계를 똑똑히 세워놓아야 하였다.

우리는 1931년 6월 중순 김정룡, 김일룡과 그밖의 핵심분자들로 안도현 소사하구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당위원회앞에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대전자, 푸르허, 처창즈방향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기층당조직들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구당위원회를 내온 다음에는 류수하, 소사하, 대사하, 안도 등지에 공청조직을 확대하고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탐험대와 같은 반일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 안도지방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되였다.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데서 제일 큰 난관은 혁명대오가 사분오렬되여있은것이였다.

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과 물북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이 마을들에 청년회조직들이 따로따로 들어가있었다. 물북의 청년조직은 정의부의 후예들이 주관하는것이였고 물남의 청년회는 심룡준과 같은 참의부의 인물들이 관할하는것이였다. 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며 지내는데다가 최동화가 지도하는 엠엘계의 청년조직까지 줄을 늘이고있어 청년운동내부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년조직들을 원상복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에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인도해나갔다. 우리가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경계하였기때문에 최동화와 같이 파쟁에 인이 박힌 사람도 안도지구에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 과정에는 적대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또한 매우 심했다.

카륜이나 오가자 같은데서는 촌장들이 모두 우리 영향하에 있었지만 흥륭촌에서는 촌장이 악질지주 무한장에게 붙어 렴탐군노릇을 하였다. 그자는 마을사람들의 동향과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내탐해가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아가군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흥륭촌의 남녀로소 전부가 참가하는 성토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을에서 쫓아버리였다.

며칠후 무한장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홍정을 들이댔다.

《나는 김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걸 미리부터 느끼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구안도에 가있고 여기에는 내 보위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것들이 김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의 원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지내기도 딱하단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텐데. 그러니 우리 서로 좋도록 합시다. 김선생이 여기를 아주 떠나주시오. 려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나서 이렇게 응대했다.

《당신이 념려할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주이기는 하지만 중국사람으로서의 량심을 가지고있을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일제를 미워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해칠 리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중국청년들인 보위단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졸렬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념려하는것보다 우선 당신자신이 일본놈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야기를 끌지 않고 흥륭촌을 떠나갔다.

그후 무한장과 그의 보위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새로 임명되여온 촌장도 우리 눈치를 보아가며 꼭 필요한 행정임무만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만일 우리가 안도에서 대중을 조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때에 관철하지 않았더라면 백색테로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지에서 무한장과 같은 큰 지주를 굴복시킬수 없었을것이며 그를 감히 중립화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을것이다.

조직된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힘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을수 없다.

흥륭촌과 그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활기에 넘쳐 자기의 력량을 확대해나갔다.

(끝)

일심단결은 조선의 위력

얼마전 기네신문 《호로야》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근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고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일심단결, 이것은 조선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고 그 전통과 계승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것이 바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매혹되여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였다.

단결의 유산은 그 다음세대에 귀중한 진리로 물려졌다.

해방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이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적의 화구도 서슴없이 막았다.

전후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때 인민은 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당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자력갱생정신으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전체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를 수호하였고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발휘된 조국의 일심단결의 화폭들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매혹과 흠모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무한한 정, 그들의 행복을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기 위한 친어버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관된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늘 인민을 찾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인민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인민을 위해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자는 것이 그이의 뜻이고 의지이다.

지난해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고온과 무더위속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인민은 기쁨에 앞서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이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젓갈제품을 보시면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그처럼 기뻐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펼치는 시책이 고마와,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령도에 끌리여, 한없이 소탈하신 인민적풍모에 매혹되여 인민들은 그이를 따르고 받들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광장에서 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인민들이 령도자를 흠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자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만들었다.》, 《조선사람들이 자기 령도자를 따르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라고 격정들을 토로하였다.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 발걸음도 함께 하려는것이 조국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이다.

참으로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바로 이것이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폭풍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기에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조국은 자기가 정한 발전의 길을 따라 더 힘차게 전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수기

그리움을 더해주는 그날의 약속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체100(2011)년 7월 10일.

그날은 남들이 다 휴식하는 일요일, 그것도 찌는듯 한 열파로 하여 날씨는 숨막힐듯 몹시도 무더웠습니다.

뜻밖에도 이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평양제1백화점을 찾아주실줄 꿈에도 생각 못하였습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상품을 어서 보자고 불편한 몸이시였지만 활달한 걸음으로 들어서시는 장군님을 뵈옵는 저희들은 그만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너무나도 수척해지신 그이의 존안이 아프게 안겨들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환한 미소로 감추시며 1층홀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이번 제2차 상품전시회에 수백여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단위들에서 내놓은 경공업제품들이 1 400여종의 350만여점에 달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전시대앞으로 가시였습니다.

사실 매대에 진렬된 인민소비품들은 그이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면을 익힌 《구면친구》들이였습니다.

각종 청량음료들과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매대를 지나 화장품매대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상품적가치가 있게 포장도 잘하였다고, 전시대가 희한하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기름매대에 가시여서는 들깨기름 1종만 전시되여있는것을 보시고 인민소비품전시회에는 응당 먹는기름을 내놓아야 한다고, 기름이 5종은 되여야 하며 특히 먹는기름으로서는 콩기름이 기본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였습니다.

특정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여 상품전시회의 품위가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있어야 한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우리는 머리가 숙어졌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상품전시회를 여는 목적도 인민을 위한것인것만큼 전시회에 대한 평가도 몇몇 일군들이 아니라 인민들의 평가가 기본이 되여야 한다, 전시회를 통해 상업부문에서 경쟁을 하면 인민들이 덕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가…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하시는 그이의 당부에는 진정 인민, 이 말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없이 3층에 진렬되여있는 질이 높은 경공업제품들까지 다 보시고나신 그이께서는 전시대가 더 없는가고 물으시며 아쉬운듯 1층의 매대들을 또다시 돌아보자고 하시며 승강대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때 그이의 웃옷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대보수하느라 랭각장치가 불결한 상태여서 전시장은 대단히 더웠습니다.

신상의 불편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상품들을 일일이 다 보아주시였던것이였습니다.

이날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아무때나 와서 돌아보겠다고, 상품이 떨어지면 자신께 편지를 쓰라시며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남기신 말씀이 그이의 유훈으로 되고 남기신 약속이 다시는 이루어질수 없는 꿈이 될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무때나 와서 보시겠다며 사랑의 약속을 하시던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못 견디게 간절해집니다.

금시라도 그이께서 우리의 상품이 꽉 차있고 사람들로 흥성이는 백화점으로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들어서실것만 같습니다.

8년전 그날의 약속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상업봉사형식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가는 참된 인민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평양제1백화점 부지배인 리영미

《은하》제품생산자들

하당은하피복공장에서 생산되는 《은하》상표를 단 피복제품들은 평양시안의 백화점과 상점들에서 판매되고있다.

《은하》피복제품이라고 하면 국내의 상업부문에서 품종이 다양하고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은하》상표를 단 남자양복은 하당은하피복공장의 독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문이 났다.

비결에 대해 조명숙지배인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생산설비의 현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비를 다루고 제품을 생산하는것은 생산자대중입니다. 생산의 주인인 종업원들은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것이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할뿐아니라 국가에 더 많은 리득을 주게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체47(1958)년에 창립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설비들도 갱신되고 세대교체가 여러번 진행되였지만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품종이 다양할뿐아니라 질이 담보된 피복제품들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예로부터 옷이 날개라고 사람들의 옷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공장에서는 그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다종다양한 피복제품들을 제때에 생산하는데 경영전략의 초점을 맞추면서 종업원들이 제품개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을 앞세운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과 설계를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전체가 기술학습의 주인이 되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보급실에서 옷가공방법과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작업현장과 휴식장소들에 설치해놓은 콤퓨터영상장치들에 보내줌으로써 종업원들이 어느때나 새 기술자료들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체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였으며 현행생산과 새 제품생산에 따르는 기술습득을 동시에 진행하여 제품의 질도 높이고 시간도 훨씬 단축할수 있게 되였다.

이 나날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한 재봉공들의 수도 늘어만 갔다.

많은 기능공들을 가지고있는 공장은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과 설계를 생산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고급양복, 내의류, 솜옷을 비롯한 각종 의복류들과 류행복, 어린이옷들도 생산하여 수요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인증증서를 받은 공장은 세계 여러 나라 회사들과의 기술교류, 경제협력사업도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래일의 도시경영일군들로

평양도시경영기술대학은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자리잡고있다.

6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대학은 직업기술대학으로서 지난 기간 도시경영부문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으로 되고있는 도시들의 경영사업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요구수준도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과들을 늘이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의 실천응용능력을 키우는데로 부단히 접근시켜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기술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수사업이 실험실습, 과학연구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고있는것이다.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수요강이 작성되고 실험실습과목의 비중을 높여 교수내용의 실용화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나가고있다.

도시경영학강좌에서는 록색건축에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선진적인 도시경영기술자료들과 연구성과들을 교수내용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교수에 가상현실기술과 증강현실기술을 도입하는것과 함께 록색건축의 본보기를 창조한 려명거리와 주요건설현장들을 통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있다. 현실에서 건물에 대한 진단과 측정, 원인분석, 보수대책, 보수시기와 방법 등의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천능력을 높여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서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요구를 반영하여 환경관리학강좌를 새로 내왔다. 강좌에서는 대기, 물, 토양을 관리하는 기술과 에네르기관리기술을 비롯한 생태환경에 필요한 과목들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그리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조국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 내용들을 계속 수정보충하고있다.

강좌에서는 현재 도입중에 있는 고체페기물로 건축시공에 필요한 여러가지 보온재와 마감건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등 페기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학생들을 적극 인입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대학에서는 자체로 실험실습장들을 꾸려놓고 학생들의 지식을 공고히 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육의 특성으로부터 수삼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50여종의 나무들로 교재림을 조성해놓고 학생들이 식물관찰, 채종, 재배 등 도시수림화, 원림화에 필요한 실험실습과 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으며 화초종수가 근 200종이나 되는 현대적인 온실도 꾸려놓았다.

원림기술학강좌의 김경숙박사는 《도시경영부문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키워내는것은 우리 교원들의 임무이다. 그러자면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어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기술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현실과 결부된 교수와 과학연구사업은 학생들이 해마다 진행되는 여러 전시회와 축전, 현상응모들에 좋은 성과들을 내놓게 하고있다.

지금 대학의 학생들은 세계적인 도시경영추세에 맞는 인재들로 자라나기 위해 탐구를 거듭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낚시애호가들

《로인들은 하루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이 물음에 많은 로인들이 자기가 하고있는 가지가지 일거리들을 이야기할것이다.

우리가 사진에 소개하는 로인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는 낚시질로 휴식의 한때를 보냅니다. 낚시질을 하면 피로도 풀리고 몸도 마음도 젊어진답니다.》

이 로인들은 조선자연보호련맹 평양시위원회 낚시질애호가협회 성원들이다.

이 협회에는 6 500여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여있는데 그중에는 녀성들도 있다.

나이와 성별,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회원들은 수면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그들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여러 강들과 호수에 살고있는 물고기들의 종류를 거의 다 알고있으며 물고기의 생태학적특성에 대하여서도 환하게 꿰뚫고있다.

그들의 생활에서 이채로운것은 매주에 한번씩 자체로 진행하는 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이다. 경기는 구역단위로 진행되고있다.

제정된 시간동안에 잡은 물고기의 마리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경기는 로인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아무리 낚시질에서 경험이 많은 년장자라고 해도 갓 낚시질을 배운 초학도에게 질 때도 있어 경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있다.

얼마전에도 만경대구역과 보통강구역에서 낚시질애호가경기가 진행되였는데 만경대구역에서는 리춘옥(72살, 녀)로인이, 보통강구역에서는 안영수(63살, 남)로인이 1등을 하였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은 시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에 선출되고있다.

많은 로인들이 1등을 하기 위하여 미끼와 낚시도구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알쓸이철의 물고기라든가 희귀종으로 등록된 물고기, 새끼물고기들은 잡지 않으며 혹 잡은 경우에도 놓아주는것이다.

로인들은 저녁이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만들기 위해 낚시질과 관련한 책을 보고 자식들과 의논도 하면서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로인들 대체로가 미끼를 만드는 비방에 대하여서는 《비밀》에 붙인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보동에 살고있는 동승일(64살)로인의 말에 의하면 물고기들도 새큼하고 달고 깨끗한 먹이들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여 미끼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명 떡미끼라고도 부르는 자기 미끼는 붕어, 잉어, 쏘가리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로인들은 낚시질과정에 서로 친숙해지고 정을 나누며 화목을 도모해가고있다.

김만수 조선자연보호련맹 평양시위원회 낚시질애호가협회 서기장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과 호수가 많으며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잘 된 조국의 그 어디나 낚시질을 할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관심속에 60년전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낚시질애호가협회가 조직되여 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 과정에 로인들은 젊음을 되찾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름다운 대동강과 보통강에 비껴흐르는 낚시군들의 모습은 평양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낚시도구매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낚시질애호가경기에 참가하여

도전, 세계재료과학계가 인정하다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재료설계강좌 강좌장 박사 부교수 유철준이 내놓은 새로운 에네르기재료들의 구조와 물성에 관한 연구론문은 세계재료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새로운 재료설계리론과 방법을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치있는 연구론문들을 내놓은 그였다. 이번에도 그는 그 리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초점을 모으고있는 새로운 태양전지재료들에 대한 설계와 나트리움이온축전지의 전극재료설계리론과 방법들을 련이어 내놓았던것이다.

그의 론문은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되고 토론회들이 진행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계는 그가 기존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식의 새로운것을 들고나가는 창조적인 학자라는데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였다.

유철준

런던에서 진행된 과학토론회에서 유철준박사의 토론을 청취한 런던제국대학의 박사 부교수 아론 왈쉬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과학협회들중의 하나인 영국왕실협회의 《지구적인 도전 연구기금》에 포함되는 공동연구에 그를 초청하였다. 중국 홍콩과 까자흐스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에서도 련이어 그를 공동연구에 초청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세계재료과학계가 인정하는 학자로 되였다. 그 높이에까지 도달하기는 헐치 않았다.

그가 재료설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부터였다. 박사원과정에 재료설계기초에 관한 론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그가 처음이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발전된 몇개 나라 그것도 일류급대학들에서만 진행되고있었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그는 점점 오리무중에 빠져드는것 같은 감을 느꼈다. 불안으로 모대기던 어느날 그는 그 원인이 다른 나라의 재료설계리론에 집착되여 모방과 류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늦게나마 찾게 되였다.

자기의 실책을 느낄수록 그의 뇌리에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런던에서 진행된 과학토론회에 참가한 유철준
주체107(2018)년 7월

그것은 그가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그는 자기의 그릇된 관점에 종지부를 찍고 개발창조로 연구종자를 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실패가 거듭되였지만 그는 외진 산골마을의 철부지소년이였던 자기의 재능을 찾아주고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을 빛내여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며 연구에 지혜와 열정을 쏟았다. 마침내 그는 전혀 새로운 재료설계리론과 방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유철준의 론문을 실은 국제학술잡지들의 일부

도이췰란드에서 유철준에게 수여한 자연과학박사증(왼쪽)과 노벨수상자들과의 상봉참가증(오른쪽)

그후 그는 도이췰란드 아헨종합대학의 연구생으로 있는 기간에 가치있는 론문을 발표하여 그 나라의 자연과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국에 돌아와서도 연구성과들을 련속 내놓아 세계재료과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합금과 고용체재료의 전자적구조와 성질을 효과적으로 모의예측하기 위한 확장편균방법은 그의 성을 붙인 유-에머리쉬확장방법으로 명명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량자력학과 열력학을 결합한 제1원리열력학리론에서 종전에 한가지 재료성분밖에 고려하지 못하던것을 두가지이상의 재료성분들을 취급할수 있도록 리론을 발전시켰으며 고성능병렬콤퓨터를 리용한 통합재료설계지원체계도 확립하였다.

사실 통합재료설계지원체계의 확립은 첨단정보기술을 요구하는것이여서 매우 힘든것이지만 그는 자기 식으로 개발창조함으로써 대학의 학술적권위, 조국의 기초과학기술발전면모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주체101(2012)년에 조국의 물리학박사학위를 받고 재료설계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그는 지금도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많은 론문들을 발표하고있으며 국제첨단재료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있다.

세계재료과학계가 인정하는 유철준박사, 그는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재료설계분야의 세계를 헤쳐나가기 위한 산을 끊임없이 넘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상 식

그 네 뛰 기

그네뛰기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녀성들이 즐겨 논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봄과 가을에 널리 진행되였다.

력사책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네뛰기가 널리 진행되였는데 그중에서도 평양의 그네뛰기는 특별히 유명하였다.

당시 그네줄은 보통 정자나무가지에 매였으며 부드러운 천으로 안전손목띠를 매고 디디개를 얹어서 두발이 편히 놓이게 함으로써 그네뛰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구르고 챌수 있게 하였다.

그네뛰기에는 한사람이 뛰는 형식(외그네)과 두 사람이 한그네에서 마주 서서 함께 뛰는 형식(쌍그네 또는 맞그네)이 있었으며 승부를 가르는 그네뛰기에서는 외그네뛰기를 많이 하였다.

승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초기에는 그네를 주로 굵은 나무가지에 매고 뻗것만큼 앞나무가지(또는 꽃가지)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무는 방법과 방울줄을 높이 달아매고 그것을 점점 높여가면서 최고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갈랐다. 그후에는 디디개밑에 눈금을 박은 줄을 매달아놓고 그네줄이 멎었던 상태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갈랐다.

이처럼 그네뛰기는 녀성들의 몸단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으며 동시에 민족체육종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 * *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김미래

예로부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첫사랑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서부터 표현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 한 체육인의 이름에도 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소망이 깃들어있는가싶다.

김미래, 룡남산체육단의 10대의 나어린 물에뛰여들기선수.

그는 지난 5월 로씨야, 카나다, 영국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여들기 세계순회경기대회 녀자 10m고정판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그는 이 경기대회의 녀자 10m고정판동시경기들에도 참가하여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그의 어머니 김혜란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사내아이들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놀기를 좋아하였다. 길을 걸어도 도로연석우에 올라 걸군 하였다. 너무도 벌차 딸애의 장래를 두고 걱정이 많았다.》

미래가 물에뛰여들기선수가 된것은 7년전이였다.

당시 룡남산체육단 감독들과 선수들은 새로 온 그의 훈련과정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체조분야의 천성적기질을 타고난것은 물론 10살을 갓 넘긴 어린 나이에 비해 그 누구보다 이악하고 동작습득속도가 매우 빨랐기때문이였다.

미래는 열성이 대단했다.

짬만 있으면 몸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힘에 부치는 탄력망우에서의 공전을 거듭 반복하였고 감독이 제시하는 난도높은 동작들을 수행하느라 수학공식들을 따져가며 밤새워 애를 쓰군 하였다.

어떤 때에는 체력의 극한점을 이겨내느라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며 구간들기를 하였고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복근훈련이며 손목힘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시간은 불과 1.8초정도, 이 한순간을 위해 그는 보통사람들 같으면 걸음을 내짚기조차 두려워할 아찔한 10m높이에서 하루에 120~130회나 물에 뛰여들었다. 물에 내리꽂힐 때 선수가 받는 압력이 체중의 10배로 볼 때 매일 평균 그의 작은 몸에 실린 중량은 결국 60여t이나 되였다.

흔히 물에는 흔적을 남길수 없다고 한다.

비록 온몸을 적시는 그의 땀방울은 물에 씻기워도 그의 비상한 훈련열은 최근년간에 진행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였다.

그의 경기상황을 두고 중국, 마쟈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외신들이 저마끔 호평하였다. 주체106(2017)년 3월 중국 신화통신은 김미래선수를 가리켜 체육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선수에게만 호칭하는 《검은 말》로 소개하였다.

그는 경기성과의 비결에 대해 말했다.

《부모님들은 나의 앞날을 축복하며 〈미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후 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성장의 걸음을 내짚었다.

나의 재능의 싹을 찾아 6살때 기계체조와 인연을 맺게 해준 평양시 서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 선생님들, 훈련부담으로 나약해질세라 힘을 주고 이끌어준 감독들과 선수들 그리고 늘 앓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근심할세라 알게모르게 나를 대신하여 왼심을 써온 이웃들과 친구들…

눈물겹도록 고마운 그들모두의 진정이 있어 로동자가정의 외동딸로 태여난 나의 미래가 꽃피게 되였다. 이 고마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나의 래일을 바쳐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9월 그는 공훈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존경받는 창의고안명수

고수녀

사람들은 누구나 로년기에 이르면 제 무릎우에 두벌자식을 올려놓는 재미를 하나의 락으로 여기고있다고 한다.

동흥산은하피복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있는 고수녀녀성은 올해 70살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수녀녀성에게 나이도 많은데 이젠 쉬라고 권고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재봉기들의 고르로운 동음을 듣는것을 락으로 여기고있다.

우리가 그를 만나러 공장의 3층 수리대에 갔을 때였다.

그는 수리대에 앉아 재봉기들의 동음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고수녀녀성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51년전 일본의 니이가다항에서였다.

당시 19살 난 고수녀녀성은 조국으로 가는 귀국선에 몸을 싣게 되였다.

그때 그는 오빠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제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남고싶은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요?》

한 프랑스녀기자가 그의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나 동포들의 귀국을 막아보려는 일본반동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조직했던것이였다.

일본 오사까의 어느 한 조선학교에서 교장사업을 하였던 오빠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의 결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수녀녀성은 오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일본에서 어릴적부터 《죠센징》이라는 말로 불리우며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고수녀녀성과 같은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어머니의 품과 같았고 그 품에 안기려는 오빠의 신념이 곧 자기의 마음과 다를바 없었던것이다.

(어머니의 품으로 향한 우리들의 길을 막는다는것이 될번이나 한 일인가.)

그의 이러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귀국선은 출항의 배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조국으로 향하였다.

배전에서 멀어져가는 일본땅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앞으로 은혜로운 조국의 공민답게 자기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다 바칠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의 맹세는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다.

함경남도 함흥시지방산업기능공학교(당시)를 졸업한 그는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재봉공으로 배치되였다.

그는 영민하고 손기가 빨라 언제나 년간계획을 남먼저 수행

하군 하였다. 짬시간이 나면 고장난 재봉기에 매달려 시간가는줄 모르고 파고드는것이 그의 류다른 《휴식》이였다.

기계속내에 밝은것으로 하여 그는 남자들만 수리할수 있다던 관념을 깨고 3년만에 공장의 수리공이 되였다. 그가 수리공이 된지 며칠만에 공장에는 솜옷을 생산할데 대한 긴급과제가 떨어졌다. 솜옷생산이 쉬임없이 진행되는데 따라 솜옷에 묻은 털을 제거하는 작업조가 새로 나왔다. 솜옷 한벌의 털을 제거하는데만도 30분이라는 시간이 소모되였기때문이였다. 로력타산을 해보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았다. 제품에는 실오리만 한 털도 붙으면 안되기때문에 별수가 없었다.

모두가 안타까와할 때 고수녀녀성만은 조용히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처음에는 원형으로 된 굴리개에 30㎝만 한 치솔을 8개 붙여놓고 솜옷의 겉면에 굴려보았다. 털 몇오리가 제품에 다문다문 남아있었어도 그만하면 괜찮았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지그자그로 6개 엇붙여보았다. 이번에는 털이 한오리도 남김없이 깨끗이 제거되였다.

성공이였다. 그때의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수 없었다.

고수녀녀성은 자기가 처음으로 맛본 창조의 그 기쁨을 인생의 행복으로 간주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크지 않은 현장은 사색과 열정의 원천과도 같았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자그마한 문제도 그는 그저 스쳐지나보낸적이 없었다.

그 나날에 소형고정절단기와 같은 설비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고 야광테프3mm지구, 장식알박이단번치기지구와 같은 창의고안과 발명도 40여건이나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수녀녀성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우리 수리공》이라는 부름속에 아낌없는 존경을 받게 되였다. 한것은 그의 창의고안들이 어느것이나 로동계급의 건강을 담보하고 생산성과를 높이는데서 실효가 컸기때문이였다.

그는 지난 40여년간 30여명의 수리공들을 키워내여 생산정상화에 기여하였다.

조국에서는 그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훈기술자의 영예도 안겨주었다.

그는 최근 몇달동안 고심하여 완성하였다는 부피두터운 기술자료들을 우리앞에 꺼내놓으며 이야기를 마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국의 부강을 이룩하자는것이 우리 인민모두가 지닌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희장에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상 식

베개모에 새겨진 수무늬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베개모에 다남다복과 부귀, 장수, 사랑, 지조, 신의 등을 글자무늬, 식물무늬, 동물무늬, 자연현상무늬로 형상하여 수놓았다.

글자무늬로는 대체로 부, 귀, 수, 복, 희, 강, 녕, 다남, 오복 등의 글자를 새겼으며 식물무늬로는 모란, 련꽃, 포도, 석류, 참대, 매화, 국화, 란초 등을 형상하였다.

동물무늬에는 사슴, 학, 박쥐, 봉황, 룡, 나비, 범, 원앙새 등 여러가지 짐승이나 새들이 있었다.

또한 무병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십장생무늬도 많이 수놓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몇가지만을 선택하여 수를 놓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이름도 붙이였는데 베개모에 새겨진 무늬에 따라 각이하였다.

대표적인것은 한쌍의 어미봉황과 7마리의 새끼봉황을 수놓은 구봉침, 원앙새와 학을 한쌍씩 수놓은 원앙침, 학침, 수, 복자를 수놓은 수침, 복침들이였다.

또한 호랑이, 모란, 련꽃, 십장생무늬 등을 수놓은것은 호침, 모란침, 련꽃침, 십장생침이라고 하였다.

*　*　*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이동통신공사 김봉춘방 정증숙누님 앞

보고싶은 누이에게

보고싶은 누이, 그동안 잘 있었소.

조카들인 봉춘이와 봉석이도 모두 잘 있으리라고 보오.

내가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가서 누이를 만나본지도 이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 나를 부둥켜안고 《조국의 정책이 좋아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구나.》라고 하시던 누이의 손을 놓지 않고있소.

자식들이 자꾸만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앉아 대접만 받겠소.

이웃들에선 자식들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자식복이 있다고 우릴 몹시 부러워하오.

그럴 때면 덩실한 집에서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것이 내가 자식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누이생각이 더 자주 나오.

피줄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우연한 소리가 아닌것 같소.

인편이 있으면 안부를 묻고 소식도 전하고싶었는데 마침 우리 군에 잡지 《금수강산》의 기자선생들이 오지 않았겠소. 그래 이렇게 몇자 소식을 전하오.

우린 모두 잘 있소. 나는 물론이고 로친도 비록 나이는 있지만 아직도 오륙이 성성해 일 좋아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군 하오.

내가 중국에서 누이를 만나고 온지 3년후 조국에 큰물이 났댔소.

우리가 사는 신양군의 피해도 참으로 혹심하였소.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던지…

그런데 글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나라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안에 수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겠소. 그래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종전의 집보다 더 좋은 새 집을 받아안던 날 우리 가정은 너무도 감격하여 울고 또 울었소.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 보답하는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

그래서 나와 로친은 조금이라도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을 주자고 일손을 잡았소. 생각던 끝에 가정에서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키워서 군의 여러 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소.

우리들이 하는 일이 군살림살이와 나라에 보탬이 되면 얼마나 되였겠소. 솔직히 그저 마음뿐이지. 하지만 군의 일군들과 동네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을 찾아했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면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오.

누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특성을 살려 지역적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소.

누이, 우리 신양군에 한번 오오.

그때 우리 지방의 향취가 한껏 풍기는 특산물들로 한상 푸짐히 차릴 생각이요.

누이, 상봉의 그날까지 건강에 류의해주길 바라오.

평안남도 신양군 신양읍
86인민반 정경훈 올림

부흥하는 고장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 염주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평안북도 선천군과 철산군을 린접하고있는 염주군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주요소금생산지라는데서 그리고 염소동이라고 불리운 소금밭이 있는 마을이 있다는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

우리는 태를 묻은 염주땅을 뒤에 남기고 타향으로 떠난 동포1세대들에게 고향에 대한 옛 추억을 불러오기 위해 군의 일군인 길명국을 만났다.

그는 우리가 찾아오게 된 취지를 듣자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염주군은 지난날 락후한 농업지역으로서 뒤떨어진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얼마간의 소금을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염주군은 농업과 공업,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과학기술적으로 담보되고 조화롭게 발달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적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과 공업, 수산업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고있었다.

우리는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내중협동농장이였다.

무연하게 펼쳐진 바둑판같은 논들마다에서는 벼이삭들이 가을을 맞아 누렇게 익어가고있었다. 규격화된 논들을 바라보느라니 지난날 거북등처럼 갈라터진 논판에 차라리 눈물이라도 한독 쏟아지라고 한탄하던 농민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가슴아프게 어리여왔다. 한편으로는 관개수 흘러넘치는 옥토벌에서 기계농사, 과학농사를 짓는 오늘의 현실을 동포들이 보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우리는 군의 일군으로부터 농장에서 우렝이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우렝이를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순응시키던 날들이며 우렝이의 사름률을 높여 살초제를 쓰지 않고 논김도 잡고 지력을 높이던 일들…

우리의 눈에는 논판의 충실한 벼알들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그 한알한알에는 자기 손과 지혜로 농장살림살이와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가려는 이곳 농장원들의 불같은 지향이 비껴있는듯싶었다.

내중협동농장뿐만이 아니였다. 학소협동농장에서도 우렝이를 보관할수 있는 건식에 의한 잠재우기방법을 완성하여 많은 연료와 남새,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알곡생산을 늘여나가고있었다.

긍지에 넘친 일군의 이야기속에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에 의거할 때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 진리가 담겨져있었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군의 지방공업과 수산업에서도 나타나고있었다.

해방전 변변한 공장 하나 없었던 염주땅, 바다양식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고장이 지금은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고있었다.

염주고려약공장과 만명술공장만 보더라도 기술혁신을 활발히 진행하여 생산의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지방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각종 고려약들과 이름난 술제품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었다.

이외에도 군에서는 개간된 간석지에 여러 용도의 양식장들을 꾸려놓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삼, 왕새우, 조개를 비롯한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군내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었다.

땅과 바다를 가지고있으면서도 하루 세끼 풀죽도 먹기 힘들어 눈물속에 정든 고향을 떠났던 동포들의 고향이 오늘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과학의 힘으로 부흥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고있는것이다.

미래원에서 일하는 리향미는 《우리 미래원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모르면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설수 없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할수 없다는것이 군내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 지향에 의해 우리 군은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군안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이곳 주인들이 지닌 향토애와 그로 하여 변모될 염주땅의 보다 훌륭한 래일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염주군미래원에서

개간된 간석지에 꾸려놓은 양식장

염주군 염주유치원의 물놀이장

고국방문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일군대표단 -

이번 조국방문기간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보고 또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위상에 대하여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외활동소식을 전해들으면서 너무도 젊으신분이 너무도 로련하시고 담대하시며 강하시다는것을 페부로 느끼였습니다.

오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전변은 더 말할것도 없고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형성된것은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하신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마전해수욕장에서

대성백화점을 돌아보았다.

고국에서 태여났으면

나는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대학의 한 일군을 통해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 고국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일떠세우고 나라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일군들을 양성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또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졸업식까지 가지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말 놀랍다. 놀라움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대학의 매 교실, 방마다 교육설비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니 세계를 놀래우는 과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출되고있는것이다.

대학을 돌아볼수록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나도 고국에서 태여났으면 이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었겠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 솟구쳤기때문이다.

나는 아쉬움을 아들을 이 대학에 보내는것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 나의 아들은 대련에서 콤퓨터를 배우고있다.

나는 아들을 이 대학으로 보내여 고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고국인민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겠다.

고국을 잘 알게 될 때 그는 고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될것이다.

교류협회 상무부회장사업과 청년협회 회장사업을 같이 맡아보는 나는 동포청년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여 그들모두가 고국을 더 잘 알도록 하겠다.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상무부회장 김용찬

정말 놀랍다

나는 고국에 처음으로 왔다.

그러다나니 보고 듣는 모든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특히 나를 놀라게 한것은 만경대고향집에 있는 쭈그러진 독이였다. 그 독은 당시의 생활형편을 낟낟이 보여주고있었다.

그것을 보느라니 생각도 깊어졌다.

나는 고국인민이 우러러 칭송할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렇게 수수하고 평범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을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였고 인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것이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정책만 보아도 다 인민을 위한것이였다.

보건제도만 놓고보아도 매우 인민적인 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인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를 해주고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해주고있었다.

오늘 고국이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은 다 그분께서 뿌리신 씨앗이 열매되여 맺어진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국인민들은 그래서 위대한 주석님께서 서거하신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을 못

잊어하며 그리워하고있는것이다.

진정 그분이시야말로 위대한 분이시다.

나는 멀리 해외에서 살아도 내가 보고 느낀 모든것을 영원히 간직하며 동료들에게 고국에 가볼것을 권고하려고 한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리옥남

애국위업의 명맥을 이어가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민족성을 지키고 동포자녀들의 장래를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각급 총련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유능한 민족인재로 훌륭히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교가에 어린 마음

지난해말 총련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는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중부조선중학교는 10만명 도까이지방동포들의 애국열의에 의해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해에 세워졌다.

남다른 기쁨과 긍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지역동포들의 가슴속에서는 추억의 파도가 물결치고있었다.

교사는 비록 소박한 가설건물이고 변변한 교과서 하나 없었지만 우리 말과 글을 배운다는 기쁨으로 즐거운 웃음소리 넘치던 학교창립초기의 나날들이며 조국의 따뜻한 사랑이 어려있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감격과 환희로 울고웃으며 애국의 맹세를 다지던 못 잊을 그 낮과 밤들, 학교를 단결의 거점으로 삼고 애국위업을 굳건히 고수해온 자랑찬 로정…

참다운 조국애와 민족애를 발양하고 단결된 힘을 높이 과시해온 그 긍지높은 력사는 이 학교 교가에도 어리여있다.

억압과 고난속에 싸워지킨 내 교정
영원히 빛내자 중부일대 곡곡에
끓는 정열로 앞서나갈 우리들
배움의 길에서 조국앞에 다지자
…

유모아

귀가 서로 통하다

《아버지, 내 귀는 서로 통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허튼소리, 귀가 어떻게 통했단 말이냐?》

《허튼소리가 아니예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는 공부시간에 한쪽 귀로 듣고 다른쪽 귀로 흘러버린대요. 귀속이 서로 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흘러나가겠어요?》

* * *

자랑찬 력사는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진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어떻게 굴함없이 민족교육을 지켜왔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 빛나는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이 미덥고 름름한 새 세대들을 위해 이곳 동포들은 지금 새 교사건설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과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은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을 짓부시기 위한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모든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있다.

총련 지바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지역안의 일본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뒤끝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군 한다.

재일조선인자녀들이 이역땅에서도 마음의 구김살 한점없이 공부하고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노래춤무대를 펼쳐놓는것을 보며 일본인참관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것이 있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 마음이 절로 개운해진다는것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세계와 진지한 학습태도, 굳센 단결력과 례절바른 도덕품성, 교정에 흘러넘치는 혈육의 뜨거운 정 등 총련의 민족교육만이 펼칠수 있는 놀라운 현실에 접하게 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들은 일본학교들에서는 흉내도 낼수 없는 훌륭한 교육을 보았다고, 조선학교에는 참으로 남다른 긍지가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 학교에서는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우월성,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고 지지성원의 목소리를 한층 높일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적극 활용해나가고있다.

하기에 이역땅에서는 날이 갈수록 민족교육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으며 애국위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수 기

내가 밟은 땅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 나는 동료들과 함께 꿈결에도 그려보던 고국에 왔다.

고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가게 될 고국이 과연 어떤 곳일가 하고 생각했다.

한것은 고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이였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고국땅에 발을 디디니 나의 온몸은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였다.

이것은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어도 느낄수 없었던 류별난것이였다.

평양은 깨끗하고 문화적인 도시이다.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수림속에 있는듯 한 기분이였다.

거리들에는 버려진 비닐봉지, 휴지 한장 찾아볼수 없고 화단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과 랑만이 비껴흐르고있었다.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마음은 젖어만 들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았던 나는 뜨거움에 눈굽을 적셨다.

해방후 고국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대학을 세웠고 시련의 시기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으로 하여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앞날의 인재들을 위해 교육설비들을 최신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정말 놀랍다.

리윤만을 따지는 기업가들의 사고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렇지만 고국에서는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후대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고국이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뿐아니라 과학분야에서도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내가 고국방문에서 받은 감동은 이뿐만이 아니였다.

고국방문기간 나는 민족적인것을 고수해가고있는 고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안내원이나 봉사원, 의례원을 만나보아도 우수한 우리 말을 살려나가고있었으며 민족적인것을 매우 중시하고있었다.

그들은 옷을 입어도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었고 말을 해도 그 어떤 잡탕말이 아니라 고유한 우리 말을 쓰고있었다.

거리를 오가면서 건축물들을 보아도 다른 나라의것을 본딴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이 살아나게 하면서도 민족성이 결합되여있었으며 공연무대에도 민족예술이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서양문화의 침습으로 민족성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고국에서는 민족적전통이 살아숨쉬고있었다.

이것을 목격하는 나로서는 민족적긍지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 해외동포들속에서는 우리 말이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그들은 말을 해도 그 나라말과 조선말을 섞어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조선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물며 고국에 태를 묻었으면 고국의 말을 잘 알아야 하는것이다.

하기에 우리들은 몇년전에 마음과 힘을 합쳐 대련시에 옹달샘학교를 세우고 조선말교육을 주고있다.

나도 조선말을 잘 아는 동포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교육을 주고있다.

동포학생들은 물론 동포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나는 이번에 돌아가면 그들에게 내가 본 고국의 모습을 사실그대로 이야기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고국을 알고싶거든 고국땅을 한번 밟아보라. 백번 남의 말을 듣느니 자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보라. 그러면 전도양양하고 민족성이 꽃피는 고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것이다.

나는 다음해에 아들을 데리고 고국에 다시 오겠다.

중국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부회장 김명옥

전 설

흥 부 동

유서깊은 평양의 모란봉구역에는 지금도 옛 지명 그대로 흥부동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흥부동이라고 불러오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고구려의 왕이 어느 하루 한 관리를 불러 어명을 내리였다.

《우리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하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양이 산천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들 한다. 네가 평양에 가서 수도로 될만 한 지세를 갖추고있는가를 보고 오너라.》

왕의 어명을 받은 관리는 곧 행장을 갖추고 평양을 찾아 초행길을 떠났다.

그는 압록강과 청천강을 건느고 험한 준령들을 오르내리면서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한 산정에 올라 땀을 들이면서 앞을 바라보던 관리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넓고 푸른 강이 흘러내리는데 북쪽은 산발들로 둘러싸여있고 그앞으로는 탁 트인 넓은 벌이 펼쳐져있었다. 그야말로 보기 드문 지세였다.

(이곳이 바로 평양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든 관리는 인가를 찾아 강기슭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강가의 오붓한 곳에 있는 한 농가에 들리여 집주인을 찾았다.

《이 지방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예로부터 평양이라고 불러오는 지방이올시다.》

《그렇소? 평양이 옳단 말이지요. 아, 이제야 찾았구나!》

관리는 드디여 평양을 찾은 기쁨에 어쩔줄 몰라하면서 의아하게 바라보는 로인에게 자기가 평양을 찾기 위하여 걸은 사연을 이야기해주고 오늘에야 평양을 찾았으니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관리는 로인에게 물 한그릇을 청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집으로 들어가 큰 술잔을 가지고나왔다.

《그처럼 귀하신 손님을 달리 대접할 길 없사오니 이 잔으로 저 샘터의 물을 떠 잡수시기 바라옵니다.》

관리는 그 잔을 받아가지고 집앞에 있는 샘터에 가서 맑은 물을 떠마시였다. 그런데 이 어인 조화이랴.

잔으로 떠마신것은 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였다.

술은 향기로울뿐아니라 온몸에 상쾌한 기분을 주면서 피로가 금시 다 풀리고 새 힘이 부쩍 솟게 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며칠간 평양의 지세를 돌아보고난 관리는 흡족한 마음을 안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에게 평양을 돌아보고온데 대하여 자상히 아뢰였다.

왕은 관리의 말에서 로인이 준 술잔으로 샘물을 떠마시니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술이였다는 말을 듣고나서 경탄하며 기뻐하였다.

《평양이야말로 수도로 될만한 곳이로다.》

이리하여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였다.

평양에 수도를 옮긴 후 로인이 큰 술잔을 주었던 마을을 흥배(흥을 돋구어주는 술잔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것이 그후 전해오는 과정에 흥부로 변하여 흥부동(재부가 흥하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표리부동)

- 간에 가 붙고 염통에 가 붙(는)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리익이 되면 체면을 돌보지 않고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하는 간사한 행위를 이르는 말.

- 고양이 쥐생각

속으로는 해치려는 앙큼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동정하는척 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등치고 간 빼먹는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해치고 자기의 리속을 채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속으로 호박씨 깐다

마음이 으스름하여 겉으로는 아닌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하고싶은 노릇이나 딴짓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6)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반침략투쟁사의 갈피속에는 왜구의 침습을 반대한 고려인민의 투쟁도 기록되여있다.

왜구가 고려땅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13세기 20년대부터이지만 본격적인 침략이 감행된것은 1350년부터였다.

왜구들은 수십척 또는 수백척의 배를 타고 고려에 련속 침입하여 중부조선이남의 연해고을들을 략탈하였으며 때로는 수도 개경(개성)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고려인민들은 1360년대초 외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일단락 지은 후 왜구를 쳐부시는 대규모의 싸움들을 련이어 진행하였다. 특히 1370년대말에 최무선에 의하여 화약무기가 함선들에 장비됨으로써 고려인민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수 있게 되였다.

왜구를 격멸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에서 대표적전투는 진포해전과 운봉전투였다.

1380년 8월 금강하구인 진포에 달려든 수만명의 왜적들은 500여척의 함선을 포구에 정박시키고 뭍에 올라 여러 고을을 싸다니면서 곡식을 략탈하였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고려함대는 라세, 최무선의 지휘밑에 화약무기로 장비된 100여척의 함선에 나뉘여타고 진포앞바다의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고려함선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비된것을 알리 없었던 왜적들은 고려함선이 적은것을 얕보고 여러척으로 편성된 선단을 끌고나와 달려들었다.

고려함선들은 달려드는 적선을 향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삽시에 적들의 배에는 불이 달리고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다. 500여척의 적선은 크게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물속에 가라앉고말았으며 수많은 적들이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죽었다.

승리의 함성이 서해를 진감하는 가운데 고려수군은 적들에게 랍치되였던 33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하고 유유히 개선하였다. 진포해전은 지금까지 배전을 서로 맞대고 싸우던 전술대신에 먼거리에서 적선을 쳐부시는 새로운 전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이긴 싸움이였다.

이 싸움은 적함대를 일격에 불살라버릴수 있는 화약무기의 위력을 시위하고 고려함대가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갔음을 보여준 력사적인 싸움이였다.

진포해전에서 겨우 죽음을 면한 왜적들은 함선들을 몽땅 잃고 도망갈 길이 끊어지자 륙지에 기여올라 이미 로략질을 감행하던 잔당들과 합세하여 운봉현(전라북도 남원군)에 몰려들었다.

바로 이러한 때 고려군은 남원으로 진출하여 적들의 퇴로를 막아버린 다음 왜적들이 몰켜있는 운봉을 향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해안으로 나가려는 기도가 파탄되였다는것을 안 적들은 험준한 산속에 진을 치고 고려군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고려군은 산우의 적을 올리공격해야 하는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길 아닌 길을 열며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여 적의 지탱점을 빼앗았다. 고려군은 적들의 반돌격을 물리치면서 용기백배하여 싸워 횡포무도한것으로 악명을 떨치던 적괴수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죽이였다.

고려군은 두목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적들에 대한 섬멸전을 벌리였다. 당시 고려군의 섬멸전이 얼마나 드세게 진행되였던지 겁에 질려 아우성치는 적들의 비명소리가 운봉골짜기를 꽉 메웠는데 그 울부짖음소리는 마치 몇만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울어대는것과 같았다고 한다. 또한 왜구의 시체가 락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메울 지경이고 강물이 여러날 붉어져있었다고 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1 600여필의 말과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재를 로획하고 개선하였다.

화약무기로 장비된 고려함대는 그후 곤양해전과 박두양해전을 련이어 진행하여 수많은 적선들을 불살라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군은 적들의 침략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쯔시마에 대한 원정을 조직하고 공격하여 해안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처럼 고려인민은 바다를 건너 침습해오는 왜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남포시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2)

- 강서세무덤 -

강서세무덤은 크기가 비슷한 세개의 돌칸흙무덤으로 되여있다.

앞쪽에 놓여있는 제일 큰것이 큰무덤이고 그뒤에 나란히 놓인 두 무덤가운데서 서쪽의것이 중무덤, 동쪽의것이 작은무덤이다.

큰무덤안에는 돌로 쌓은 무덤칸이 있는데 그우를 진흙과 석회를 섞어 다지면서 쌓아올리였다. 무덤무지의 한변의 길이는 50m, 높이는 8. 7m이다. 안길과 안칸으로 된 외칸무덤이며 무덤칸은 잘 다듬은 화강석판돌로 되여있다.

중무덤 역시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고있다. 무덤의 무지는 한변의 길이가 45m, 높이가 7. 8m이다. 안길과 안칸으로 된 돌칸흙무덤이며 안칸의 뚜껑돌은 독특하게 생겼다.

작은무덤은 세 무덤가운데서 제일 작은 무덤이다. 무덤무지의 한변의 길이는 약 40m이며 높이는 6. 75m이다.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무덤칸은 화강석을 잘 다듬어서 만들었다.

이 세 무덤은 당시 고구려사람들의 치밀한 설계와 능숙한 시공, 세련된 돌가공기술을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고구려회화예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큰무덤과 중무덤에 있는 벽화에는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필치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이 그려져있다. 특히 중무덤의 벽에 그려진 백호는 앞을 쏘아보는 부릅뜬 눈, 크게 벌린 아가리, 날카로운 이발, 탄력있는 날씬한 몸뚱이, 우로 꿈틀거리면서 들어올린 긴 꼬리, 균형잡힌 네다리 등 모든 요소가 매우 생동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강서세무덤의 벽화는 고구려회화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걸작인 동시에 세계문화보물고에 이바지한 훌륭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① 청룡
② 백호
③ 주작
④ 현무

진주대첩에 이바지한 김시민

김시민(1554년－1592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관이다.

그는 1578년 무과에 합격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1592년 진주목사(당시 지방행정단위인 진주목의 장관)를 하였다.

그해 10월초 3만여명의 왜적이 군사전략적의의가 큰 진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당시 성안에는 수천명의 관군과 적은 인원의 인민들이 있었다.

김시민은 그들을 지휘하여 성을 수축하였고 한편으로는 무기를 만들고 군량을 마련하였다.

10월 6일 침략공격을 개시한 적들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조총대의 사격밑에 성벽으로 접근하였다.

녀인들까지 남복차림을 한 성안의 방위자들은 일제히 활과 조총, 총통으로 적들에게 사격을 퍼부었다.

첫 공격에서 실패한 왜적들은 다음날 성벽밖에 높은 흙산을 쌓고 성안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발악하였다.

김시민은 적의 흙산에 대처하여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총통사격으로 흙산을 허물도록 하였다.

치렬한 전투는 여러날동안 계속되였다.

성안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성밖에서 지원하는 의병부대와 합세하여 성우에 현자포와 진천뢰 등을 설치해놓고 련속 사격하였으며 끓는 물과 불뭉치, 큰돌들로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결사적으로 물리쳤다.

마침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세를 물리치고 성을 수호하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던 왜적의 기도를 파탄시키게 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3대승리의 하나로 알려진 이 진주대첩과 더불어 김시민은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다.

그는 왜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순찰하다가 시체속에 숨어있던 적병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증직으로 그에게 령의정벼슬과 상락부원군의 칭호를 주었다.

* * *

상 식

노래와 건강

노래를 부르면 일상적인 몸단련에 못지 않은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노래를 부르면 심장과 페가 단련된다.

일상생활에서는 무의미한 호흡이 많이 진행되는데 매 호흡과정은 약 3초사이로서 호흡량은 500mL이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더 세게, 더 깊이 하게 되여 호흡량이 증가될뿐아니라 가슴부위의 근육이 단련되여 흉곽의 확장을 세게 하며 심장박동도 높아지게 된다.

노래는 또한 심리건강에도 좋고 정신과 지력을 높여준다.

노래는 사람들의 심정을 평온하게 하여 불안과 고독감을 쫓아버린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 음정을 정확히 찾고 가사를 기억하는것은 대뇌의 기억력을 높이는 좋은 단련으로 된다.

또한 노래를 부르면 얼굴의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근육과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것이 좋다.

* * *

조국의 젓갈문화

안녕하십니까, 동포여러분.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풍속이 세세년년 이어지고있는 우리 조국에서 젓갈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저는 며칠전에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젓갈문화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평안도지방사람들이 건뎅이젓이나 새우젓, 호드기젓 같은것을 특별히 좋아하였는데 여러분들속에 옛 평안도에 고향을 둔분들이 계신다면 젓갈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군침이 절로 날것입니다. 젓갈 한숟갈정도이면 밥 한사발은 게눈 감추듯 비울수 있어 예로부터 젓갈을 《밥도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젓갈품의 종류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건뎅이젓으로부터 시작해서 젓갈이름들을 줄줄이 꼽아내려가는것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젓갈에 대한 표상이 정확하지 않은 동포들도 있을것 같아 그 정의부터 해드릴가 합니다.

젓갈이란 바다물고기들과 그 내장에 소금과 양념감을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삭혀 맛을 들인 식료품입니다.

젓갈품의 가지수는 참으로 많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젓갈품들가운데서 조선서해에서 나는 건뎅이젓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조개젓, 새우젓, 굴젓, 호드기젓, 잔물고기젓 등은 서로 독특한 맛과 향기, 영양가가 높아 입맛을 돋구어주고 소화도 잘 시켜주는 부식물입니다.

조선동해지구에서 명태만으로도 몇가지의 젓갈품을 만들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의 알을 가지고 담근것은 명란젓, 밸로 담근것은 창난젓, 살고기만 에여 토막내서 담근것은 명태젓이라고 합니다.

동해지구에서는 멸치젓이 이름났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강조하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조선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기, 영양가와 그 가치는 젓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젓갈은 저장성이 높고 그 리용에서 편리하며 밥반찬으로 쓰일뿐아니라 배추국, 호박국 등을 끓일 때 소금, 간장 대신 새우젓 같은것을 넣고 만들수 있다는것을…

그럼 젓갈이 어떻게 되여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젓갈은 일반적으로 재료(물고기의 살이나 내장, 알 등)에 소금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우선 부패변질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젓갈의 소금농도는 18~20%정도이지만 저장을 목적으로 만들 때에는 소금을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15℃에서 삭혀 익힌 다음 0~5℃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젓갈재료 특히 내장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강력한 작용으로 분해되면서 특이한 맛과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파, 마늘, 생강, 고추가루와 같은 여러가지 양념감을 넣어주면 젓갈의 맛과 냄새가 더 좋아집니다.

창난젓은 그대로 또는 썬 무우와 함께 익혀서, 명란젓은 그대로 혹은 거품이 일도록 푼 닭알과 함께 쪄서, 멸치젓은 양념을 하였다가 삭혀 그대로 먹든가 호박이나 무우지지개를 만드는데 조금 넣거나 겨울김치를 담글 때 젓갈국물을 넣으면 좋습니다.

동포여러분, 지난해 우리 조국의 서해포구에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일떠서 갖가지 젓갈품들이 생산되여나오고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가정들에서만 만들던 젓갈품이 이제는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되고있으며 그 맛도 훨씬 좋아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자리잡고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조국에 오시면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제품들을 꼭 맛보십시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교원 정영철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0)

- 룡악산 -

룡악산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쪽에 위치하고있는 산이다.

해발높이가 293m인 룡악산은 예로부터 기묘한 바위봉우리가 하늘높이 솟아있고 록음이 짙은 숲, 가을의 붉은 단풍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와 평양의 금강산으로 알려져왔다.

룡악산이란 이름도 바로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들이 나있으며 산마루우에는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있어 산세가 험하다. 특히 북동쪽비탈면에는 깎아지른듯 한 벼랑이 있는데 산비탈은 30°이상으로서 급하다.

력사유적 법운암

룡악산은 산림의 대부분이 소나무숲 또는 소나무와 참나무의 섞임숲으로 되여있으며 600여종의 식물들이 퍼져있다. 특히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특별히 보호관리되고있는 룡악산느티나무와 룡악산참중나무, 룡악산회화나무, 룡악산은행나무가 있다. 노루와 다람쥐, 청서를 비롯한 산짐승들과 수많은 새들의 지저귐소리는 룡악산의 자연미를 더욱 돋구어준다.

산중턱에는 바위짬에서 수정처럼 맑고 차거운 물이 사철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는데 이 샘물에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셀렌과 불소가 적합하게 들어있어 조국인민들속에서 《룡악산샘물》로 유명하다.

산기슭에는 수질이 좋은 룡악산샘물공장과 이 샘물로 각종 기능성비누를 생산하는 룡악산비누공장이 있으며 만경대소년단야영소와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가 훌륭히 꾸려져있어 자연의 아름다운 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산정점인 대봉까지 탐승도로가 잘 닦아져있고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길수 있게 야외휴식터가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이밖에도 룡악산에는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들인 법운암, 룡곡서원이 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룡악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외동포들

날로 발전하는 조중친선

우의탑

올해 10월 6일은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는 조국인민들은 전투적우의와 신뢰로 굳게 결합되여있는 조중친선관계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속에서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은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하여 어깨겯고 함께 싸웠다. 그 나날에 친근한 혁명전우로서의 의리는 더욱 깊어지고 동지적믿음도 굳건해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와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대전을 조직령도하시던 시기 중국의 혁명가들과 공고한 동지적관계를 맺으시였다.

항일의 전구마다에는 중국의 혁명가들과 손을 잡고 사선의 고비를 함께 헤치시며 조중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헌신과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성스러운 항일대전의 나날에 조중 두 나라 혁명의 승리와 공동의 리념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수많은 렬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이라는 거목을 자래우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일제패망후 중국에서 일어난 국내전쟁때에도 함께 싸우며 항일혈전의 나날에 맺어진 우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동북해방전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온 장춘, 길림, 심양해방전투는 물론 중국관내와 멀리 해남도까지에 이르는 수만리길에서 벌어진 치렬한 전투들에서 수많은 조선의 아들딸들은 새 중국의 탄생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과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기와 탄약, 폭약, 의약품 등 막대한 군수물자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보내주도록 하시는 등 중국혁명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시였으며 친히 중국 단동에까지 가시여 전선형세의 근본적전환을 위한 전략전술적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중국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조선인민군, 광범한 조선인민은 갓 해방되여 모든것을 복구하여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중국의 동북해방전쟁과 전반적중국해방전쟁을 사심없이 지원하였다, 모택동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렬사들의 피가 스며있다고 말하였다고 전하였다.

항일의 혈전만리와 중국국내혁명의 불길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해진 조중 두 나라 인민의 혈연적뉴대, 친선의 위력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주체39(1950)년 10월 25일 중국당과 정부는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시련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지원군을 무어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상감령의 황계광영웅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군용사들이 조선전쟁에서 고귀한 청춘을 바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갓 창건된 어려운 조건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한것은 반제공동투쟁의 길에서 맺어진 혁명적의리의 발현으로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산모범으로 된다.

조선인부대전투원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금주해방전투
주체37(1948)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 조선인민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조선의 산과 들에 붉은 피를 뿌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들의 위훈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목숨걸고 헤쳐야 하는 시련의 고비마다에서 생사를 함께 해온 조중 두 나라사이의 혈연적뉴대와 친선관계의 전통은 두 나라 령도자들의 각별한 동지적신뢰와 혁명적의리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이 강화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 세기 80년대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으시여 중국의 지도자들과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시였으며 조중친선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공고발전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시였다.

그 나날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서로 지지협조하면서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굳게 손잡고 투쟁하였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반사회주의광풍이 보다 세차게 일고 여러 나라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때에도 지심깊이 뿌리내린 조중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안친선유리공장과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을 찾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 검증되고 더욱 강화되여온 조중친선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여러차례의 상봉을 통하여 각별한 동지적우정과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시였으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친선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조중친선관계발전의 장구한 력사는 서로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투쟁해나갈 때 그 어떤 도전도 능히 물리칠수 있으며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전세대들이 뜻과 정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하며 마련하고 다져온 조중친선의 위대한 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가려는것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조선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의 뉴대를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조국에는 조중친선을 전하는 우의탑,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 대안친선유리공장등도 있다.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예술과 체육부문의 교류와 래왕도 진행된다.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0)

평안남도의 특산－양덕송이버섯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지방특산물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지방특산물들중에는 평안남도의 양덕송이버섯도 있다.

송이버섯은 예로부터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아 누구나 좋아하는 산나물의 하나였으며 특히 평안남도의 양덕지역은 송이버섯의 산지로 유명하였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역별 특산물항목에는 송이버섯이 평안남도 양덕의 이름난 특산물의 하나로 기록되여있다. 또한 《물명고》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비롯한 여러 력사문헌들에서는 송이버섯은 소나무숲에서 나는데 그 맛이 매우 독특하며 누구나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력사자료들은 예로부터 송이버섯이 양덕지방의 독특한 특산물의 하나였으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양덕지방에서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것은 이 지역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을뿐아니라 그속에는 송이버섯이 자라는데 적합한 오래 자란 소나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실지로 송이버섯은 15~16년생 소나무에서 돋기 시작하는데 특히는 40~60년생 소나무숲에서 제일 많이 돋아난다.

버섯은 겉면이 연한 노란밤색 혹은 진한 밤색을 띠며 섬유모양의 비늘이 덮여있다. 버섯갓은 어릴 때에는 둥글다가 자라면서 편평하게 퍼지며 직경은 8~20㎝정도이고 버섯살은 흰색을 띠는데 독특한 향기를 낸다. 뿐만아니라 맛과 향기가 독특하여 여러가지 음식과 통졸임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만들수 있으며 영양가가 높아 사람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효능이 높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조명철

통일의 감격과 환희를 불러온 선언

10월 4일은 6월 15일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사에 뜻깊은 날로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주체96(2007)년 바로 이날에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 등 북남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반영되여있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10.4선언에는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를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쳐있다.

6.15의 력사적인 상봉에 이어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으로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실것을 결심하신 그이께서는 그를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여러차례의 실무접촉들이 진행되였고 결과 주체96(2007)년 8월 평양에서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남측일행의 출입로정으로부터 영접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낡은 틀을 깨버리고 새롭게 우리 식으로 진행되도록 지도해주시였다.

주체89(2000)년에 비행기로 왔던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때와는 달리 로무현대통령이 개성공업지구를 통과하는 북남련결도로로 오도록 대범한 아량을 베푸시여 분렬사상 처음으로 남조선당국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평양에 오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평양상봉이 마련되였고 그이께서는 남조선대통령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상봉기간 그이께서는 자주 6.15연고자들에 대해 감회깊은 추억도 하시고 북남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편하게 수시로 오갈수 있는 《친척관계》라는 민족애가 넘치는 뜻깊은 교시도 하시면서 북과 남이 민족공조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6.15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때 평양상봉에 참가했던 남측의 한 장관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애초 로무현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해외국빈이 아닌 하나의 민족, 한집안의 손님으로 례우하시였다, 이러한 파격이 있을수 있었던것은 무엇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믿음과 민족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었기때문이다고 자기의 감동을 피력하였다.

북남수뇌상봉이 있은 후 조선반도의 전반적분위기는 일신되고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되였다. 북남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고 군사적적대관계의 종식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되였다.

온 겨레는 통일되고 번영할 래일을 커다란 희망과 신심에 넘쳐 그려보았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찬물만 끼얹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된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은 전면중지되게 되였다.

민족의 통일의지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반통일세력들의 죄악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도 없고 용납될수도 없다.

오늘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년간 주동적이며 파격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여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연구사 리철

높아가는 《자한당》해체투쟁열기

남조선에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이 대중적성격을 띠고 날로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자한당》해체를 위한 국민주권련대, 5.18기념재단, 《자유한국당》규탄시민련대 등 각계층 단체들이 결성된것을 비롯하여 10대의 초등학생으로부터 로동자, 대학생, 가정주부, 70대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투쟁에 참가하고있다.

각계층 사람들은 《인간같지도 않은 〈자한당〉인간쓰레기들을 초불로 쓸어버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온 국민이 적폐청산과 《자한당》해체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한당》성원들을 조소하는 글이 씌여진 구호판들과 이자들이 감옥에 구속되는 장면이 인쇄된 사진들을 들고 《박근혜잔당 구속하라.》, 《황교안은 감옥으로》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기세를 올리고있다.

학계, 경제계 등의 인사들은 물론 서울시장, 광주시장을 비롯한 전지역의 시, 도단체장들도 《자한당》을 단죄규탄하면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해나섰다.

그런 속에서 《자한당》해체투쟁은 전례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졌다. 《국회》청사와 《자한당》당사앞,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곳곳에서 초불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민항쟁에 궐기할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자유발언, 예술공연 등이 각지에서 련일 벌어졌다.

청와대게시판을 통한 《자유한국당》해체청원운동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남조선의 한 주민이 청와대게시판에 《자유한국당》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의 참가자수는 몇달만에 근 190만명에 달하였다.

인터네트홈페지에도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가 하면 《자한당》이 운영하는 인터네트홈페지 등에도 보수세력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다. 뿐만아니라 《자한당》성원들의 손전화기들에도 엄중경고하는 《문자폭탄공격》이 하루에도 수백번 가해져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보수세력을 혼비백산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죄악으로 얼룩진 보수세력을 부정부패와 명예훼손, 《국가비밀루출죄》에 걸어 검찰에 고발하는 법적투쟁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해산심판 시민헌법재판소》가 《자한당》성원들을 시민법정에 세우는 심판식을 열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한당》당사에 대한 돌입시위와 장의화환보내기, 물벼락 등 각계층의 《자한당》해체투쟁은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한당》해체투쟁은 온갖 죄악을 저지른 보수세력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지금 《자한당》보수세력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초불민심에 도전하면서 력사의 심판을 뒤집어엎고 보수부활흉계를 실현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자한당》해체투쟁은 보수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심의 발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지금 해일과 같은 민심의 무서운 폭발앞에 《자한당》보수세력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전전긍긍하고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와 부정부패를 일삼고 초불민심에 도전한 《자한당》보수세력이 민심의 심판을 받고 파멸되는것은 숙명이며 력사의 필연이다.

본사기자

변하지 않는 재침야망

군국주의부활을 노린 일본의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는 헌법개악과 관련하여 《아직도 자위대를 무근거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있으며 자치체들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해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력설하였다.

참말로 철면피한 군국주의광신자의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가소로운것은 《자위대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해지역에 파견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느니, 《국민들을 위해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하는것은 국방의 근간과 관련되는것》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들을 줴쳐댄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자위대》가 마치도 인도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존재하는것처럼 떠들어대는 진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하나 헌법을 뜯어고쳐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일본은 《복수》를 부르짖으며 과거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과거에 힘이 약했기때문에 패하였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늘여왔으며 새로운 무장장비개발 및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왔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각료회의에서 방위계획대강과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것을 결정하고 그 실행에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무제한한 군비확장으로 《자위대》는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으로 자라나고있으며 활동범위도 날로 커가고있다.

지금 《자위대》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쇼》와 최신예전투기의 도입, 다음세대레이다개발과 호위함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위한 움직임을 비롯하여 무력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해외의 여러곳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벌려놓고있으며 군사작전범위도 더욱 확대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미화분식하고 국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있다.

군국주의사상고취의 맨 앞장에는 아베를 위시로 하는 일본의 정객들이 서있다. 몇달전에도 아베는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하였으며 극우익단체인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망라된 정객들이 무리로 진쟈에 몰려가 머리를 조아렸다.

야스구니진쟈에 일본의 정객들이 밀려다니는것은 력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우고 그들을 추모하는것을 정례화하여 새 세대들에게 침략의 넋을 심어주자는것이다.

교육기관들에서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부를것을 강요하고있는것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히노마루》를 날리고 《기미가요》를 목터지게 불러대면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히노마루》게양과 《기미가요》제창은 일본의 침략력사를 긍정하고 재현하려는 위험한 행위로 국제적인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히노마루》게양과 《기미가요》제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침략력사에 대한 긍지감, 군국주의에 대한 동경심, 패망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주려 하고있다.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한 다음 일본이 무엇을 선택할것인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일본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자위대》의 작전능력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불의의 선제타격을 위한 수법을 부단히 련마하고있다.

현실은 군사적힘의 우세에 기초하여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속심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동종기술제품들

도로건설무역회사에서 동종기술을 리용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산삼, 록용, 나노금의 효능을 100배로 증폭시킨 동종생물활성수와 건강장수식품으로 공인하는 스피룰리나의 효과를 리상적으로 나타내는 사탕가루스피룰리나 동종기술제품들이 초점을 모으고있다.

이 제품들을 사용한 사람들은 언제나 맑고 거뜬한 머리로 인간의 사고능력, 실천능력을 최대한 높일수 있을뿐만아니라 건강회복에 좋다고 하면서 필수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동종기술제품과 그 생산방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증서를 받고 지적제품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들에서 1등을 하였다.

국규 10673:1999
사탕가루
스피룰리나동종기술제품
15g
도로건설무역회사

몽금포의 저녁 본사기자 홍광남

낮에는 흰 모래불, 붉은 해당화, 푸른 소나무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움을 펼쳤던 서해의 명승 몽금포에 저녁이 왔다.

금빛자락을 안고 쉬임없이 밀려와 흰 갈기를 날리는 파도, 붉게 타는 노을속에 잠긴 기묘한 바위들은 볼수록 장관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218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